

타이거살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평론가들의 비평과 감상을 전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구원:
드라마<수리남>

폭력과 욕설, 마약과 사이버. 최근 K-드라마에 펼쳐지는 풍경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성매매(《인간수업》(Netflix, 2020)), 자금세탁(《모범가족》(Netflix, 2020)), 마약(《소년비행》(Seezn, 2022)) 등 그간 텔레비전에서 시도할 수 없었던 높은 수위의 드라마가 대거 제작되기 시작했다. 범죄가 텔레비전을 넘어 OTT까지 점령하는 지금의 현상은 비정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K-콘텐츠가 생존을 넘어 글로벌 시대의 정서 구조를 고안해내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드라마 <수리남>은 가족을 위해 전 재산을 걸고 수리남으로 온 강인구(하정우)가 현지 한인교회의 전요환 목사(황정민)를 만나면서 흩어 대신 마약과 얽히며 국정원의 권유로 민간요원으로 잠입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자연스럽게 <수리남>은 전요환과 강인구의 대립을 서사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선악의 경계가 뚜렷한 인물의 배치는 그동안 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혼돈의 판을 펼쳐오던 윤종빈의 세계와는 사뭇 다른 풍경을 그려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수리남>의 서사를 강인구와 전요환의 ‘관계’로 옮겨놓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부모 없이 동생들을 책임지며 밑바닥을 구르던 강인구는 살아남기 위해 아버지가 되는 길을 선택한다. 전화 돌리기로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 짧은 청혼 시퀀스는 강인구에게 결혼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전요환 역시 밑바닥 인생을 타



개하기 위한 종교와 마약을 통해 아버지가 되기를 자청한다. 부패한 공무원(경찰과 안기부 직원)과 만난 이후 아버지가 되기 위해 수리남으로 향해야만 했던 사실은 이 둘의 목적이 같음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만 국가라는 아버지가 무너진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각 생물학적 아버지와 영적 아버지라는 선택지가 갈렸을 뿐이다.

그간 윤종빈은 폭력으로 순환하는 일그러진 남성 세계 이면에 폭력이 세대를 횡단하는 풍경을 카메라 밖의 아들들을 통해 세밀하게 관찰해왔다. 그가 그리는 영화 속 남성들은 생존을 위해 아귀다툼을 벌이면서도 아버지라는 역할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아버지를 보며 자라난 아들이 다시 아버지가 되어야만 하는 폭력의 순환이야말로 윤종빈의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수리남>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에 위태롭게 서 있던 아버지를 관조하며 성장한 세대가 현실에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윤종빈이 던졌던 질문은 진부해 보일지언정 결코 가볍지 않다. 강인구와 전요환이 구원이라 생각했던 아버지 되기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점차 일상으로 바뀌는 지금 일생을 건 모험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버지 되기를 스스로 포기해야만 하는 시대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아마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인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송치혁 드라마 평론가

아랑줄띠 - @ 신당 '링링'

'아랑줄띠'는 알아두면 좋을 곳이란 뜻의 제주도 방언입니다.

가루의 다이어리를 카페로 만든다면



신당동에는 조금 다른 느낌의 카페가 있다. 신당역 7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10분 정도 가면 만나는 카페 ‘링링’이다. 겉모습만 보면 여기가 카페가 맞나 싶을 것이다. 벽면이 온통 초록색인 데다가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헬로키티, 케로피 같은 귀여운 산리오 컬렉션들과 함께 모던한 인테리어가 손님들을 반긴다. 듣기로는 사장님이 산리오 팬이셔서 산리오의 단종된 물품들을 모으신다고 한다. 그래서 카페에는 현재 매물 자체가 없거나 희귀한 것들이 많다. 카페 안을 청소하는 대걸레를 빼는 기계도 옛날 산리오 굿즈 중 하나인데, 지금은 매물이 없어 수집가 사이에서 상당한 소장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

서인지 카페 내부는 굿즈들로 인해 레트로한 분위기와 깔끔하고 메탈릭한 인테리어가 만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자리에 앉아 본 메뉴판에서도 링링만의 분위기를 찾아낼 수 있다. 마치 10대 소녀가 다이어리 꾸미기를 한 듯 자유로운 이미지의 배치와 틀에 얽매이지 않은 선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메뉴판을 포함해서 카페가 마치 가루의 다이어리처럼 느껴질 부분이다. 종종 가루나 고소로리 패션의 손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주문한 메뉴를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노라면 예쁘고 유니크한 패션 센스가 돋보이는 분들이 많이 보여 속으로 감탄하는 재미도 있다.

메뉴는 커피, 젤리 소다, 소다, 논 커피,

디저트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젤리 소다다. 다른 메뉴도 예쁘고 맛있지만 젤리 소다는 뒷맛이 깔끔하고 무엇보다 젤리를 떠먹는 재미가 있다. 젤리는 매장에서 직접 만든 곤약젤리인데 속이 꽉 차고 쫄득해 소다와 같이 먹어도, 디저트로 시킨 케이크와 같이 먹어도 맛있다. 링링의 케이크도 카페의 자랑 중 하나다. 파스텔톤의 색감에 화려한 장식, 그리고 서브컬처와 소녀틱한 감성이 섞였다. 케이크 레터링도 예술적이어서 먹기 아까울 정도인데 이런 강력한 비주얼을 가지고도 맛있어서 놀라울 뿐이다. 프랜차이즈 카페에 질렸다면 링링에 케이크 한 조각 먹으러 와보는 것은 어떨까?

이승연 기자 syeon@

KUDiary 9월 5주차 학사일정 안내

교내 학술·문화 행사 및 각종 공지를 안내합니다.
제보: press@kunews.ac.kr

〈행사〉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	문의
9월 26일 18:00	제1회 공대 가을축제 '갈축, 다시 만날래'	공과대학 학생회	공과대학 학생회 kuviv2022@korea.ac.kr
9월 28일 17:00 ~ 18:30	고려대 융합보안대학원(컴퓨터보안전공) 전공설명회	고려대 융합보안대학원 컴퓨터보안전공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사업단 02-3290-4502

〈모집〉			
일시	행사명	활동	문의
~ 9월 26일	제1회 대학원생 인권 논문 공모전	고려대 서울캠퍼스 대학원생 (재학생, 등록수료생)	인권·성평등센터 02-3290-2845, 2843

〈학사공지〉		
일시	행사명	문의
9월 26일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신규 메일 도입	디지털정보처 데이터Hub팀 02-3290-4187, 4777, 4183, 4182
9월 28일 14:00 ~ 17:00	특허정보검색 DB KIPRIS 이용교육	학술정보데이터센터 02-3290-4228 / hymok@korea.ac.kr

ZOOZOO총회

고대인과 함께 하는 동물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강아지



2018년 어느 날, 아버지는 3살짜리 강아지 한 마리를 갑작스레 손에 들고 퇴근하셨습니다. 알고 있던 집이 강아지를 키우다가 여건이 안돼 결국 우리 집에 오게 된 것인데요. 처음에는 눈치 보기 바쁘고 조그마한 소리에도 크게 놀라 잠도 편히 못 잤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보리라는 이름도 생기고 집에 많이 익숙해져 서로 행복하냐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리는 정말 착합니다. 간식을 줬다가 뺏어도, 밥 먹을 때 건드려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속으로는 싫어하겠지만 우

리에게 내색하지 않아요. 간식을 앞에 두고 ‘기다려!’라고 하면 또 기다립니다. 일부러 코앞까지 가져가면 냄새를 안 맡으려고 고개를 돌려버려요.

하지만 이런 보리도 화를 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 옆에 누워 있을 때인데요, 이때 건드리면 착한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대신 으르렁하는 낮은 소리가 돌아옵니다. 보리가 처음 왔을 때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얼마나 보니 보리에게 둘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 특별한가 봅니다.

보리를 처음 본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

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보리는 제가 봐도 너무 이쁘고 귀엽습니다. 우리 강아지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리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부리나케 뛰어나와 앞발을 들고 저를 반겨줍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어느새 같이 올라와서 대자로 다리를 뻗고 누워 버립니다.

보리는 오늘도 여유롭게 방석에 누워서 평화로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또 저를 열렬하게 반겨주겠죠? 저는 이러한 보리와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안상준(문과대 언어21)

고대인의 시선(詩選)

시(詩)에 대한 감상을 담아냅니다.

정서진

-정호승

벗이여
지지 않고 어찌 해가 떠오를 수 있겠는가
지지 않고 어찌 해가 눈부실 수 있겠는가
해가 지는 것은 해가 뜨는 것이다
낙엽이 지지 않으면 봄이 오지 않듯이
해는 지지 않으면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

벗이여
눈물을 그치고 정서진으로 오라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히
노을 지는 정서진의 붉은 수평선을 바라보라
해넘이가 없이 어찌 해돋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해가 지지 않고 어찌 별들이 빛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들 인생의 이 적멸의 순간
해는 지기 때문에 아름답고 찬란하다
해는 지기 때문에 영원하다

좋아하는 가수가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해준 작품이다. 정서진은 일출 명소 정동진의 반대 개념이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인천 서구 부근이며, 일몰의 상징인 곳이다. 서구 홈페이지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있다. ‘정동진의 일출이 희망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면, 정서진의 일몰은 낭만, 그리움, 회상을 의미합니다.’

정동진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시를 보며 나는 정서진에 더 매력을 느꼈다. 힘차게 떠오르는 해도 멋지지만, 스스로를 불태워 본인의 몫을 다 해내고 서서히 어둠을 향해 내려앉으며 노을을 만들어내는 해 역시 멋지지 않은가.

인간의 삶에도 힘차게 해가 떠오르는 순간과 해가 지며 어두워지는 순간이 존재한다. 지금 당장은 내 삶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나의 태양은 이미 졌다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해넘이가 없이 어찌 해돋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해가 지지 않고 어찌 별들이 빛날 수 있겠는가. 해가 지기 때문에 아름답고 찬란하듯, 우리의 인생도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변화가 있기에 더욱 아름답

고 찬란하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위로나 조언이랍시고 쉽게 던지는 말들이 있다. ‘누구나 다 그런 일은 겪는다’, ‘너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게으름의 핑계에 불과하다’ 등의 말들.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가 될 수 있고, 사람을 더욱더 가라앉게 만들기 충분한 말장들이다.

사실 앞서 말한 문장들은 필자가 직접 들어본 말들이다. 이런 말들을 들으니 모든 게 내 잘못된 것 같았다.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후회를 반복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접했다. 모든 행이 나에게 따뜻한 위로로 다가왔다. 힘내, 잘 될 거야. 이러한 막연한 위로는 아니라 나의 어둠을 인정해주고, 이 어둠이 나의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멸의 순간은 존재한다고 말해주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만 같다고 느껴질 때, 한 번쯤 노을 지는 붉은 수평선을 바라보자. 그리고 이 구절을 떠올려보자. 벗이여, 해는 지지 않으면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

박재연(보과대 바이오의과학20)

퀴즈 - 지우면 보여요



왼쪽 QR코드를 통해 고대신문 페이스북에 접속 후 퀴즈를 풀어주세요. 각 문항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표에서 지우고 남은 글자를 조합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과 이름, 학과, 학번, 전화번호를 기재해 open@kunews.ac.kr 또는 카카오톡플러스 친구 @고대신문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2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코드를 전해드립니다.